



[넘치는 유동성]
민을 건금
'역대 최고가'
03



Economy

→ 코스피	→ 코스닥
2152.41 (0.00)	752.18 (0.00)
↑ 금리 (미국 3년)	↓ 환율 (원/달러)
0.838 (+0.007)	1198.60 (-1.40) (3일)



투기성 매매자 징벌적 과세 추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 덮친 중견기업 경기 전망 '사상 최악'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3분기 75.2 기록 33.6% "코로나 영향 최대 1년"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하락했다.

올해 3·4분기 기준 전망지수가 2017년 3분기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는 75.2로 전분기의 78.7보다 3.5p 하락했다.

관련 지수는 2017년 3분기 처음 조사 당시 91.9를 기록했고, 2018년 4분기에 98.1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분기별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는 전체 4635개 중견기업 중 500개 기업을 표본추출해 ▲매우 나쁨 ▲다소 나쁨 ▲동일 ▲다소 좋음 ▲매우 좋음으로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숫자가 높으면 전분기에 비해 경기를 긍정적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70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은 '국내 수요 감소'(81.9%), '해외 수요 감소'(40.1%), '업체간 과다 경쟁'(22.8%), '자금 조달 애로'(16.5%) 등이 주요 이유였다.

특히 조사 대상 중견기업들은 코로나19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33.6%가 코로나19의 영향이 '최대 1년', 22.7%는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버티기 위해 '신규 투자 연기(19.9%)', '급여 삭감 및 인력 감축(16.4%)', '휴업(13.7%)'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39.3%는 별다른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부문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 가운데 제조업 지수가 70.8로 전분기보다 9.2p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78로 오히려 0.6p 상승했다. 제조업 중 전자부품 104.5, 식품료품 80.4, 금속 60.9, 화학 60을 각각 기록했다.

비제조업 중에선 운수(87.8), 출판정보통신(80.3), 건설(79.7), 부동산 임대(72.1) 등이 모두 100아래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 지원'(5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긴급운영자금 대출'(27%), '출입국·통관 애로 해결'(10.2%), '조업 재개를 위한 방역 지원'(10%) 등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바이오 빅3 '시총 100조시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코로나가 만든 증시 새 지형

코스피 제약·바이오주 60% ↑
유틸리티, 금융 등 전통주 약세

하반기 코로나 장기화 전망에
바이오 업종 활약 더 거세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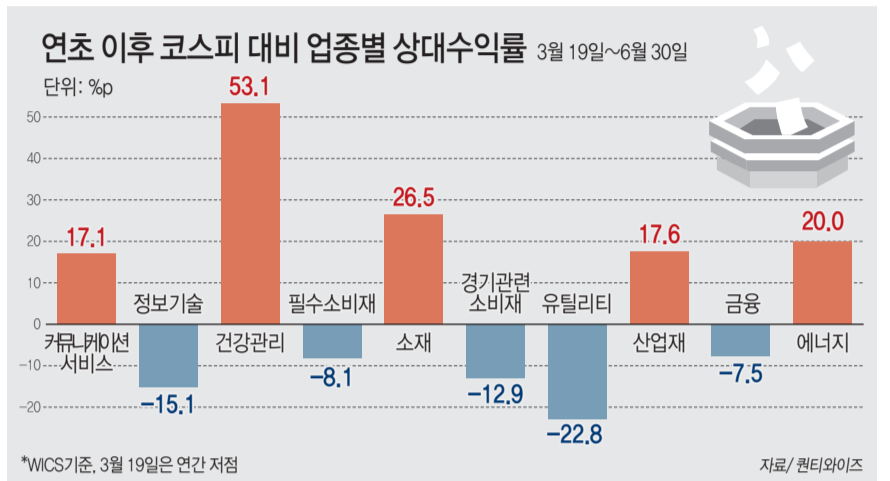
코스피 바이오 3대장의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틸리티, 금융 등 전통적인 주도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바이오주는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했다. 바야흐로 '바이오 시대'다.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시대에 바이오 업종의 활약은 계속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상반기 코스피 제약·바이오주는 연초 대비 60.2% 올랐다. 해당기간 코스피 지수가 2.9% 하락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상승세다. 코스닥 제약·바이오주 역시 35.8% 상승했다. <관련기사 4면>

◆ 바이오가 이끄는 증시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는 업종별 지수 수익률을 극명하게 갈랐다. 제약·바이오 섹터로 분류되는 건강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시장 수익률을 각각 51%포인트, 29%포인트 상회했다. 반면 유틸리티, 금융 업종은 시장수익률 대비 16%포인트 이상 하회했다.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모두 회복했다. 지난 3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지수가 폭락하기 전 수준인 2200



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연초 보다는 12.3% 올랐다. 코스닥 내 건강관리 섹터의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은 2015년부터 관심을 갖게 된 파이프라인들의 성과도 출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실적이 급등한 기업들이 발생하면서 팬더멘탈(기초체력)이 강해졌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식투자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폐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오는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상태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 홀로 순매수세를 유지하며 수급을 이끌었다. 지난 3일 기준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 7조5648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4057억원), 씨젠(2543억원), 메디톡스(2300억원), 제넥신(19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바이오 시총 100조 시대

SK바이오팜의 등장은 제약·바이오 주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SK 바이오팜은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4만 9000원) 대비 236.7% 상승한 16만 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200% 수준에서 형성됐고, 이후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한 탓이다. 시가총액은 12조 9217억원으로 바이오 공룡이 됐다.

SK바이오팜과 함께 코스피 대장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도 함께 달렸다. SK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이 불거지기 시작한 6월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0% 올랐고, 셀트리온은 45.0% 올랐다. 시총은 각각 51조 132억원, 41조 763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삼성-LG '에너지 효율 1등급' 불꽃경쟁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 정조준
가전시장 '1등급' 라인업 확대
세탁기·건조기 등 리뉴얼 출시도

가전 시장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으뜸효율 환급 사업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1등급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소비자 선택폭도 크게 늘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에 1500억원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사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전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23일 사업을 시작한 후 3개월간 국내 주요 가전 업체 7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삼성전자 그랑데 AI, /삼성전자 LG전자 트롬 워시타워, /LG전자

전년 동기 대비 약 2.3배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가전 업계에 치열한 '1등급' 경쟁을 촉발했다. 지난해 처음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 변경된 이후 1등급 제품은 거의 없었지만, 올 들어 주요 가전 분야에서 출시 러시가 이어진 것.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뜨거운 각축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출시한 신

형 모델까지 다시 리뉴얼해 출시하면서 환급 사업 수혜를 노리는 모습이다. 대표 제품은 세탁·건조기다. 삼성전자가 올 초 1등급을 달성한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놨고, LG전자가 올 초 트롬 세탁기에 이어 최근 건조기까지 1등급으로 리뉴얼 출시하면서까지 뒤를 따랐다. <6면에 계속>

/김재홍 기자 juk@